

# Red Color 제수용품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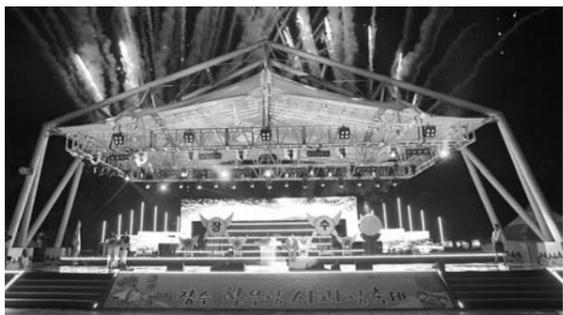
##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4일 성료

2017년 전라북도 우수축제인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2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우로 전하는 사랑! 사과로 건네는 향기!'를 슬로건으로 지난 22일부터 3일간 펼쳐진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Red Color 테마로 자연을 벗 삼아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 축제가 되었다.

홍봉길 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기간 장수사과와 오미자, 한우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장수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도시민들로 성황을 이뤘던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메인 축제장과 장수사과시범포, 수확체험장 등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장수한우 마당을 강화해 축제 만족도를 높였고 장수지역에 내려오는 백중날 전통문화인 깃절놀이 시연을 통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사과볼링체험,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2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아! 등 오락이 가미된 프로그램이 신규개발되고 완성도를 높여 이색 체험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홍봉길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는 참가자들이 한우와 사과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관매 시식행사과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확대해 지역주민뿐 아니라 많은 도시 관광객들이 장수를 찾은 것 같다"며 "재미와 감동을

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으니 내년에도 많이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최고 명품 농축산물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농촌문화관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려나갈 계획이며, 축제를 통해 장수군의 농축산물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사회복지협, 저소득가정 화재보험 가입

### 100 가구에 혜택

진안군사회복지협회는 진안관내 화재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제적 취약가정에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해줬다.

이 사업을 기획한 계기는 저소득 가정들이 해마다 화재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재할의 기회마저 포기하는 사례를 보고,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고민하게 된 송상모 회장의 취지로 신규사업으로 시작됐다.

1 순위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독거노인가구, 2 순위로 차상위 계층 및 독거노인가구 외 3 순위는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자로 11개 읍·면장과 11개 읍·면 지회장의 추천으로 진안을 14 가정,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면 각각 9가정, 용담, 안천, 상진, 정천면 각각 8가정 총 100 가정이 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보험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이며 주택 화재시 가구당 최대 2,000만원, 가재도구 및 가전제품 피해시 최대 200만원, 실화(대물) 배상특약 최대 1억 한도로 가입되었다.

주천면 김모씨는 "어려운 살림에 화재보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워센터, '부모-자녀 천연돌가루공예 체험' 실시

무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지난 14일~21일 오후 2시 관내 초등학교 생 4~6학년 15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천연돌가루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가족 간의 소통을 주제로 자녀와 가족사진 작품을 만들어 보며 천연돌가루의 감촉을 만지고 느끼면서 심신이 안정 되고 협동해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최북미술포 천연돌가루공예 보석화 공방에서 가져보았다.

석채화는 운석, 차돌, 수정 등 색깔 있는 돌을 곱게 빻아 만든 돌가루를 붓 대신 손끝으로 화려하고 신비로운

형상을 절묘하게 화폭에 담아낸다 해서 보석화라고 하는데 물감 대신 천연돌가루를 사용해 수천년이 지나도 그림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석채화 전문강사인 김기철 화백은 그동안 국내는 물론 영국, 인도, 독일, 필리핀, 호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초대전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사진 작업을 통해 천연돌가루의 매개물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듣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훈훈한 가족 간 대화를 엿볼 수 있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 사업비 3억원 지원받아... 구천동 70리길 삼삼한 이야기 등 개발

무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7년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3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는 관광특구 본래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것으로, 무주군은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특구로서 대외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수용태세를 개선해 무주구천동을 옛 명성을 회복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은 이번 공모에서 구천동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테마와 가능성 있는 아이템들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으며 △구천계곡 70리길 삼삼(33)한 이야기(구천동 33경의 역사와 전설 등의 이야기를 관광자원화)와 △무주 관광콘텐츠를 결합한 복합레저 관광상품(산악자전거, 계곡트래킹, 친환경 안전캠핑 등) 개발, 그리고 △



무주구천동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사진은 다목적광장

구천동 관광특구 포석정 설치(족욕체험장)에 대한 계획으로 주목 받았다. 무주군은 오는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 중 무주 관광콘텐츠 결합 복합레저 관광 상품은 특히 태권도원에서 시작

해 구천동 백련사까지 이르는 코스를 활용하는 아이টে으로, 산악자전거와 계곡 트래킹, 캠핑 등을 연계해 구천동이 레저의 본고장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봉사단체·공공기관, '섬김 요양원' 방문 봉사

무주군 봉사단체와 공공기관은 지난 22일 추석을 맞아 소외 이웃과 독거노인 등을 방문해 효 나들이와 주변 환경정비 봉사활동,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덕유산사랑봉사단은 섬김 요양원을 방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자 웃으시며 "이렇게 좋은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하여 그 어느 때

보다 봉사활동에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덕유산국립공원은 요양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기저귀를 준비했으며, 무주군자원봉사센터는 영양떡과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거동이 불편하고 요양원 내에서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적상산 전망대에 올라 산책도 시켜드리고 간식을 먹으면서 담소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 산서농장 박종철 대표 산서면에 쌀 50포대 기탁

추석명절을 맞아 장수군 산서면 산서농장 대표 박종철씨가 올해도 어김없이 쌀(20kg) 50포대를 산서면에 기탁했다.

박종철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이 추석명절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며 쌀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지난 7년 동안 쌀과 추석명절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소득가정을 위해 사랑의 쌀을 보내와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왔으며 기탁된 물품은 각 마을별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친환경 추석명절 추진

진안군은 '친환경 추석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2030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37%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비교적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감축 효과가 높은 생활 부문에서 실천문화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진안군은 균형 홈페이지 및 전광판,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명절음식은 먹을 만큼만 차리기, 고향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 추석 선물은 종이 영수증 발급 없이 친환경 상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은 꼭 빼기 등 친환경 명절을 보내기 위한 실천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반딧불장터 상인대학 올림픽특화과정 졸업식 개최

2017 무주반딧불장터 상인대학 올림픽특화과정 졸업식이 지난 22일 무주읍 반딧불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성권 호남본부장,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 무주반딧불장터 상인회 박용식 회장을 비롯한 상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졸업장과 표창장 수여, 소감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반딧불장터 상인회와 무주반딧불아시장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kg 쌀 200포대를 무주군에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김문희씨(51)와 이명우씨(44)가 군수 표창(명예화장), 장민승씨(53)와 신복심씨(75), 이현정씨(37), 이경순씨(59), 신경애씨(53), 조영희씨(56)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또 박금순씨(64)와 이인숙씨(64)는 전북상인연합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